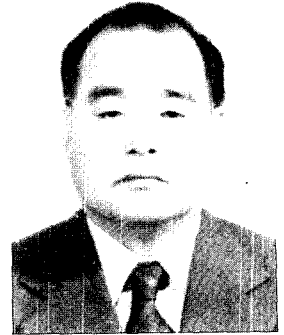




도랑물이 노래하며 흐르던 봄



全 仁 權
(本 協會報 編輯委員)
(環境廳 公報官)

(I)

도랑물이 노래를 하면서 흐르고, 나비, 제비가 하늘을 날았지요.

멀리 보이는 들녘에서는 아지렁이속에 아주까리 기름바른 고운 처녀가 지삼을 매고 있고요.

이 아름다운 들판을 거닐다가 문득 온몸에 솟구치는 힘을 느꼈지요.

- 이 天地와 하나가 되어 새처럼 훨훨 날을 것 같은 -

혼자서 산에 오를 때, 또는 들판을 거닐때도 自然은 그대로 우리를 키워주던 밀거름이었지요.

재잘거리며 흐르는 도랑물속에 발을 담그면, 물속에 잠긴 햇님이 발에 닿을것 같아 몇 번씩이나 휘저어 보던 時節.

흠어지는 송사리떼와 친구하던 시절이 어제일처럼 눈앞에 선합니다.

황룻바람도 좋았습니다.

흠바람속에 매캐하던 송진내음이 우리를 마음껏 자라게 했지요.

下校 십릿길은 신작로가 아니라도 좋았지요.

메아리가 있고

산딸기가 있고

메밀밭이 있는 하교 십릿길은,

장다리밭에 눈처럼 부서지던 하얀나비들

그나비를 따라 뛰놀던 십릿길은 신작로가 아니라도 좋았지요.

(II)

어릴적 故鄉의 그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애롭고 따듯하게 항상 반겨주는 곳, 그러나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십릿길은 버스가 다니고 도랑물이 흐르던 그 징검다리에는 시멘트로 튼튼한 다리가 놓였읍니다.

그러나 웬지 정겨움이 덜합니다. 어머니의 그 자애로운 모습에 화장을 시킨 것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향이 예대로일순 없지요.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서고 그리고 여러가지 文化惠澤속에서 우리를 맞던 어머니의 품으로 발전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너무나도 外形과 人間の 便利에만 치우친 발전은 어딘지 허전하게만 느껴집니다.

눈처럼 나니던 나비天國의 장다리밭에는 과다한 농약의 사용에 의해 나비의 모습은 어디론가 숨어버렸읍니다.

메밀밭 대신 비닐 등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게 되었읍니다.

할아버지의 옛날애기대신 외국가요의 시끄러운 노래가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읍니다.

별을 헤는 어린이가 자꾸만 줄어가는 요즈음은 어느 어린이의 눈망울이 할아버지의 예지를 간직한 고운 눈망울을 갖을 수 있을까요?

(III)

또 새봄이 왔읍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를 맞는 바람도 물도 나무도 예전의 그것들처럼 우리에게 生動感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은 나 혼자만이 느끼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송사리, 개구리, 우렁, 메뚜기 등 어릴적 우리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고 합니다. 지나친 농약사용도 한 까닭이 되겠지요.

이것들이 모두 사라진 우리의 주위는 얼마나 황량할까요?

더구나 매년 줄어가는 지구상의 森林은 각종 기상이변을 속출시켜 가뭄과 홍수를 반복적으로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지사설을 거치지 않고 마구 내뿜는 공장굴뚝의 매연, 자동차배기가스 등은 우리인체 및 동식물의 성장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비를 산성화시켜 우리의 보금자리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버린 각종 세제 등이 섞인 폐수들이 도랑에서 물고기를 쫓아 버렸습니다.

각종 소음은 농부의 午睡의 즐거움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의 보금자리를 얼마나 어지럽혀 왔는지. 이 보금자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소중하게 보전하여 온 것이며, 우리는 단지 우리세대에만 깨끗이 쓰다가 우리의 후손에게 청결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휴지를 하나주고, 겨울철에 산토끼와 들평의 먹이를 놓아 주는 것.

이것이 자연보호, 환경보전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정성은 귀중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새순이 돌아나는 우리의 조국산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맑고 쾌적함을 영원히 간직해야지요.

또다시 계절은 新錄의 環境을 생각케하는 봄입니다.

(IV)

環境을 가꾸는 마음.

環境을 지키는 마음.

그것은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이지요.

더 못되어지기 전에 사랑의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지요.

어린 새순이 굳어지기를 기다리는 農者의 마음이지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어느 익어가는 봄날에

韓何雲 先生의 「보리피리」가락속에

종달새 노래하는 들녘에서

나는 내 후손에게 일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하단다.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깨끗하단다.

맑고 밝은 우리 백의민족의 기상은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 속에서 갈고 닦아 졌노라」고 ...*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풍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